전주시내버스, 완주 삼례까지 달린다

전주시, 27일부터 지간선제 확대 시행 · 송천동~덕진동~호성동 구간 9번 순환노선 신설
전주역 KTX 막차 이용객 위한 전주역~한옥마을~평화동 구간 6-1번 심야버스도 운행

새학기를 앞두고 오는 27일부터는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가 완주군 삼례 방면까지 확대되고, 이에 발맞춰 송천동 종점에서 출발해 덕진공원,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 호성동을 거쳐 다시 송천동 종점으로 13~15분마다 다니는 순환 노선이 신설된다.

전주시는 기존 소양·상관·구이 방면 전주-완주 지간선제 2단계 노선개편에 이어 오는 27일부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삼례방면까지 지간선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완주군 삼례 방면 각 마을로 운행되던 전주시내버스가 완주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마을버스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통해 확보한 전주시내버스 8대로 주요 공급부족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고 증차 운행할 계획이다.

이번 삼례방면 지간선제 확대와 발맞춰 새롭게 신설되는 전주시내버스 9번 노선을 살펴보면, 송천동종점에서 출발해 송천주공~전라고~덕진공원~전북대학교~백제대로~사대부고네거리~전북대학교병원입구~호성주공~우아한시티A를 거쳐 다시 송천동종점으로 되돌아오는 순환노선으로 운행된다.

신설된 9번 노선은 아침 출근시간대 13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며, 시는 송천동~덕진동~호성동의 주요 밀집지역을 오가는 만큼 시내버스 내부 혼잡했던 부분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태평아이파크 등 신규 개발지역과 전주역 인후동 방면 주거 밀집지역에 시내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동서축을 순환하는 전주시내버스 6번 노선에 4대를 증차해 약 15분 배차간격으로 조정해 운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에 KTX 막차를 타고 전주에 도착해도 시내버스 운행이 끊겨 대중교통 이용을 하지 못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버스도 운행키로 했다.

심야버스인 6-1번은 KTX의 전주역 도착시간(상행 23시 12분, 하행 23시 15분)에 맞춰 운행되며, 동부대로전주역(31102) 승강장에서 탑승하면 고려병원~모래내시장~중앙시장~전동성당, 한옥마을을 거쳐 평화동종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지간선제 노선개편으로 신설되는 9번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101번 노선의 경우 기존 전주동물원에서 전북대학교종점으로 기종점을 변경하여 운행될 예정이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이번 삼례방면 전주-완주 지간선제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배차간격과 대기시간이 단축돼 보다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마무리되는 봉동·용진 방면의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해 시민들에게 시내버스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주부평생학교에서 '제8회 초등학력 인정 졸업식'을 개최했다.

'늦깎이 배움 결실' 감동의 졸업장

전주시, 성인문해교육 3단계 과정 이수
20명 학습자 '초등학력 인정 졸업식' 가져

어린 시절 누리지 못했던 배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늦은 나이에도 꿋꿋이 학업에 매진해온 어머니 학생들이 영광의 졸업장을 받았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주부평생학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주부평생학교 졸업생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초등학력 인정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지난 3년간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문해교육 3단계 과정을 이수하여 초등학력을 인정받은 학습자 20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3년 한글날 기념 도민과 함께 한글 큰잔치'의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오복 졸업생 △학습자 대표로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한 노월순 졸업생 △최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노력한 허연옥 졸업생이 시장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문해교육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등 일상생활에 있어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최근에는 기초 한글 교육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디지털 문해교육 등 다양한 생활문해교육으로 확장돼가고 있다.

이날 초등학력을 인정받은 졸업생들은 다음 달부터 전주주부평생학교에서 운영 예정인 중학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1학년으로 입학해 배움의 꿈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졸업생 대표인 노월순 씨는 "이날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던 것이 오늘의 성취를 만들어냈다"며 "지금까지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도전에 맞서 자신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과정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어른신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줬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만든다

5급 승진자 12명 대상 인권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5급 직위승진자 12명을 대상으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맞춤형 인권 교육을 통해 간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인권 의식을 갖도록 만들고,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상반기 5급 직위승진자 12명을 대상으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인권,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인권 행정 추진을 위한 인권의 이해 △직장 내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차별 관련 사례 소개(성 비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언어폭력) △부서 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이다.

시는 이번 교육이 간부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차별과 편견의 극복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간부 공무원은 "인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여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등 방문단, 전주시의회 찾아

도시재생 성공 사례 공유 · 적용 방안 등 모색

지난 23일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6명 등 15명의 방문단 일행이 전주시의회를 방문했다.

전주시의회가 경기 평택시의회와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양 지역간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3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6명 등 15명의 방문단 일행이 전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

방문단은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전주시의회 청사를 둘러보고, 의회 청사 이전을 준비 중인 평택시의회 반영 여부를 검토했다.

또 방문단은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의 면담을 통해 양 지역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적용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정일구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전주시의회 청사의 장점을 평택시의회 청사 이전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전주 도심 곳곳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평택 도시 발전 계획에 접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평택시의회의 방문은 상호 효과적 의회 운영과 양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시·군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옥기 기자

남부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후원금 100만원 전달

남부새마을금고(이사장 양명수)는 지난 23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풍남동 주민센터(동장 양명숙)에 기탁했다.

남부새마을금고 양명수 이사장은 "정성껏 모은 사랑의 좀도리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올해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명숙 풍남동장은 "다가오는 봄기운처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남부새마을금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외계층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풍남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